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합동 감식…공사 관계자 4명 입건

국과수·노동부 등 30명 참여…계측 장비·드론 등 투입
철골구조물 접합부 결함 등 확인…국토부 사조위 구성

“전반적으로 설계 시공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사고로 매몰된 현장 작업자 4명이 숨진 가운데, 수사당국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이 시작됐다.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1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구조작업 종료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식 감식으로, 사고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수사의 출발점이다.

감식이 시작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30여명이 차례로 투입됐다. 또 계측 장비와 촬영용 무인 비행체(드론) 등을 동원해 붕괴 구역에서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형상, 철근 돌출 부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여기에 건축공학과 구조기술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합류해 붕괴된 구조물 하나하나를 살펴봤다. 현장 곳곳에서는 파괴 양상과 하중 전달 흔적, 구조물 연결 상태를 놓고 세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현재 수사당국이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붕괴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철골 구조물 접합부다. 사고 당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하부 층까지 연쇄 붕괴가 발생한 만큼, 접합부 시공 상태와 구조적 결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수사당국은 1차 감식으로 충분한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2차, 3차 추가 감식도 계획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당국은 앞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광주고용노동청은 원청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공사에 참여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1·2차 압수수색을 벌였고, 시공·감리 관련 자료와 내부 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사고와 연관성이 큰 주요 참고인 1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신청된 상태다.

또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 15대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사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공정이 강행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다. 특히 지시대인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하고 있다. 이날 감식에는 구조안전기술사, 건축공학자 등 민간 분야 전문가를 포함 총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당일 철골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우선 규명할 방침이다.

설하는 이른바 ‘특허 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공법이 현장 여건과 구조 설계에 적합했는지, 위험성 평가와 시공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도 조사 대상이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감식을 통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설계와 시공 전반에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각종 의혹과 문제점 등을 인지하고 있고, 수사로 하나하나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

사조위는 강구조·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 항철위 압수수색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전남경찰청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압수수색 했다.

전남경찰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전담 수사본부에 따르면 16일 김포국제공항 인근과 세종시에 각각 소재한 항철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파견해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전문 기구로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을 맡아 왔다.

다만 항철위 관계자 중 피의자 신분으

로 추가 입건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조사위원회가 관련 범상 제추항공 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후 확보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폭발사고와 관련해 관제 업무, 조류 예방 업무, 업무관리 소홀 등에 연관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관계자 등 44명을 형사 입건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대, ‘대학원생 상습 갑질’ 전임교수 해임

비전임 교수는 ‘해고’…“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전남대학교가 대학원생에게 지속적인 갑질을 일삼은 교수 2명 중 전임교원인 A교수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렸다.

전남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교수와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비전임교원인 연구교수 B씨는 연구 계약기간 종료료를 앞둔 상태에서 지난해 이미 해고 조처됐다.

A교수와 B씨는 지난 7월 전남대 기숙

사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된 대학원생의 휴대전화 메모 등을 통해 심각한 갑질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3개월간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 두 교수는 해당 대학원생을 ‘킴킴’이라는 비하적 호칭으로 부르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수시로 지시했으며,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과 함께 취업 이후에도 연구실 근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대학원생은 평균 담당 과제 수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두 교수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

한 업무 부담을 떠안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급여는 지급받았으나,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에 대한 인건비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 관계자는 “두 교수 모두 권한을 남용하고, 고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며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교수를 직권남용과 사기 혐의로, B씨를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 고려인마을 ‘역사마을 1번지’ 재조명

제26회 보훈문화상 수상…생활 속 보훈 실천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역사·삶 포용도

광주 고려인마을이 생활 속 보훈을 실천한 ‘역사마을 1번지’로 재조명 받았다. 16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최근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제26회 보훈문화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보훈문화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보훈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확산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된 상으로, 올해도 26회를 맞았다. 보훈부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87개 팀을 대상으로, 10월과 11월 2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고려인마을을 포함한 최종 5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고려인마을은 일제강점기 연해주와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로 중앙아시

아로 내몰렸던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역사와 삶을 포용하는 보훈공동체 모델을 구축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고려인마을은 해마다 삼일절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해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과 지역 주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보훈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고려인 청소년들이 직접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는 장면은 보훈이 과거의 기억을 넘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광복절을 맞아 봉오동전투 재현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흥병도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 독립군의 무장투쟁 역사를 시민들과 공유해 왔다.

1920년 봉오동전투는 고려인 독립군

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대승으로, 고려인 독립운동사의 상징적 사건이다.

고려인마을은 이를 연극과 퍼포먼스, 해설이 결합된 재현행사로 발전시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역사교육 콘텐츠로 확산시켜 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해 흥병도 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해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과 지역 주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보훈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흥병도공원은 고려인 동포와 시민, 청소년, 관광객이 함께 찾는 열린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설 프로그램과 추모행사, 청소년 대상 역사교육이 연중 운영되고 있다.

고려인마을은 역사·기념 중심의 보훈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현실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도 힘써 왔다.

생활 지원과 의료·복지 연계, 문화 활동은 물론, 고려인 동포 자녀와 중도입



광주 고려인마을은 최근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제26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 청소년을 위한 ‘새날학교’를 운영하며 정체성 확립과 진로 설계, 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는 보훈을 과거에 대한 예우에 머물지 않고, 후손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실천적 가치로 확장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훈문화상 수상은 고려인마을이 걸어온 길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자, 보훈이 특정 집단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실천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고려인마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삼일절 만세운동, 광복절 봉오동전투 재현행사, 흥병도공원 운영 등 다양한 역사·보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려인마을은 고려인 독립운동의 역사와 강제이주의 아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다시 뿌리내리는 현재의 삶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온 공동체다.

윤용성 기자 yoi404@gwangnam.co.kr

아파트 등 새총 발사 60대

만취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구

매한 새총으로 쇠

구슬을 발사해 교회·아파트 유리창을 파손한 60대가 경찰에 체포

광주 북부경찰은 1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일용직 근로자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해 23일 오후 9시께 북구 삼각동 한 도로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3발을 발사해 인근 교회 유리 현관문과 아파트 단지 6층 세대 유리창을 각각 파손해 22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일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새총을 구매했고, 쇠구슬을 쓰는 게 재미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유무, 피해자 여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

임영진 기자

‘만취’ 선박 운항한 선원 적발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원과 이를 목격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16일 여수해경 등에 따르면 음주상태로 조타기를 운용한 70대 선원 A씨와 이를 방조한 70대 선장 B씨를 해양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남방 해상에서 117t 규모의 부산 선적 예인선을 음주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선박은 부산항에서 출항해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음주 운항은 이상 징후를 확인한 여수연안 VTS가 경비정에 해당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요청하면서 탈미가 잡혔다

적발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